

PEOPLE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아동에 수면조끼 선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수면조끼 85개를 사단법인 더함께세희망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영유아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이 제작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수면조끼는 더함께세희망을 통해 전국의 취약계층 가정과 아동생활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강근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농심전심 광주 플로깅·농촌체험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남구 지석교 일대에서 ‘농심전심 광주 플로깅·농촌체험’ 행사를 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을 비롯해 이환경 대촌농협 조합장,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 광산구시설관리공단·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석교 하천길 약 3.3km 구간을 걸으며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며 농촌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탰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오늘 행사는 농업·농촌 공간을 걸으며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체험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해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전국한우협회

영암군 산모에 한우 꾸러미 배송

(사)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지부장 한지용)는 최근 영암군과 영유아 산모에게 ‘맘튼트 영암한우 꾸러미’ 101개를 배송했다.

올해 처음으로 전달하는 꾸러미 전달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마련됐다.

맘튼트 영암한우 1개 꾸러미에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10만원 상당의 영암한우 양지 600g, 불고기 900g, 사골곰탕 800ml가 담겼다.

영암군은 꾸러미 배송을 위해 올해 1~8월 지역 출산 산모의 접수를 받아 배송 가정을 선정했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암과 영암한우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맘튼트 영암한우 꾸러미 사업이 제도로 정착돼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전남 청년벤처 위즈팜,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최우수상’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우형기 기술 개발

국무총리상·LS엠트로 대표이사상 수상

전남 청년창업기업 위즈팜(대표 염건웅)이 ‘2025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과 LS엠트로 대표이사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디지털 축산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즈팜의 주력 기술은 AI 기반 비접촉식 스마트 우형기다. 이 장치는 한우의 체형과 몸무게 등 생체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며, 이를 가축 거래 플랫폼, 스마트 경매, 가축 공유 중개 서비스로 확장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존 거래가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축산업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이다.

위즈팜은 2024년 6월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업타운에서 창업을 시작한 이후 단기간에 성장 궤도에 올랐다. ‘비접촉식 우형기 및 관리시스템’ 특허를 확보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특허·상표를 포함해 총 11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추가 2건의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다.

성과도 빠르다. 사업 개시 4개월 만에 농업경제지구 산하 강진 완도축협과 전국 우시장에 공급 계약을 맺고, 육종농가 맞춤형 서



염건웅 대표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비접촉식 스마트 우형기

비스와 공유형 블록 거점 구축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3개의 서비스를 출시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했고, 싱가포르·태국·네덜란드 등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협약까지 성사시키며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염건웅 대표는 “농부 가문 출신으로서 기존 한우 거래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며 “포켓카우 서비스로 한 번의 측정만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가족돌봄아동에 소원선물 후원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원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가족돌봄아동을 위해 총 1200만원 상당의 후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은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또래보다 어린 나이에 가사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들로, 광주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보람달 소원선물 후원’ 행사를 열고, 아동 가정에 총 700만 원 상당의 소원선물을 전달한 데 이어 최근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고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마다 아동들과 함께 장보기를 체험하며 생활 속 경제교육은 물론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오고 있다.

임양진 부행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 더욱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금융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가족돌봄아동을 위해 총 1200만원 상당의 후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주)남선, 휴대전화 판매 수익금 300만원 기부

동구 ‘나눔히어로 50호’ 등록…장애친화도시 조성 등 사용

(주)남선이 휴대전화 판매 수익금 300만원을 광주 동구에 기부하며 지역 복지사업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김창식 (주)남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휴대폰 판매 1건당 1000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

성된 성금으로, 기업 차원에서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례다. 남선은 이번 기부로 광주 동구 나눔히어로 50호로 등록됐으며, 기부금은 장애인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복지 현안사업에 쓰인다.

김창식 대표는 “남선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신뢰를 기반으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주)남선이 휴대전화 판매 수익금 300만원을 광주 동구에 기부하며 지역 복지사업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의 내일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장애인화도시 조성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전KDN,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외부전문가 참여…반부패 감시 강화

한전KDN은 최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백송 사무실에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한전KDN이 2022년부터 시행해온 외부감시 제도로, 주요 사업 수행 과정과 청렴·부패 취약 분야를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된 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연복 한전KDN 준법경영실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된 감사관은 박윤해 변호사(법무법인 백송), 정원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성균 참회계법인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3명이다.

정기회의에서는 윤리경영 추진 현황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청렴매일리지 제도 운영기준의 명확화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한전KDN은 최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백송 사무실에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세칙 개정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캠페인 확대 등을 권고했다.

정연복 준법경영실장은 “새롭게 위촉된 감사관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문 경험과 에너지공기업 관련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내부 실무진의 전문성이 결합돼 청렴 제도 개선과 부패방지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서구, 양성평등정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구새마을회, MZ청년과 전통놀이 체험 광주시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는 최근 동구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한별태권도장을 찾아 딱지치기·웃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교실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동구새마을회